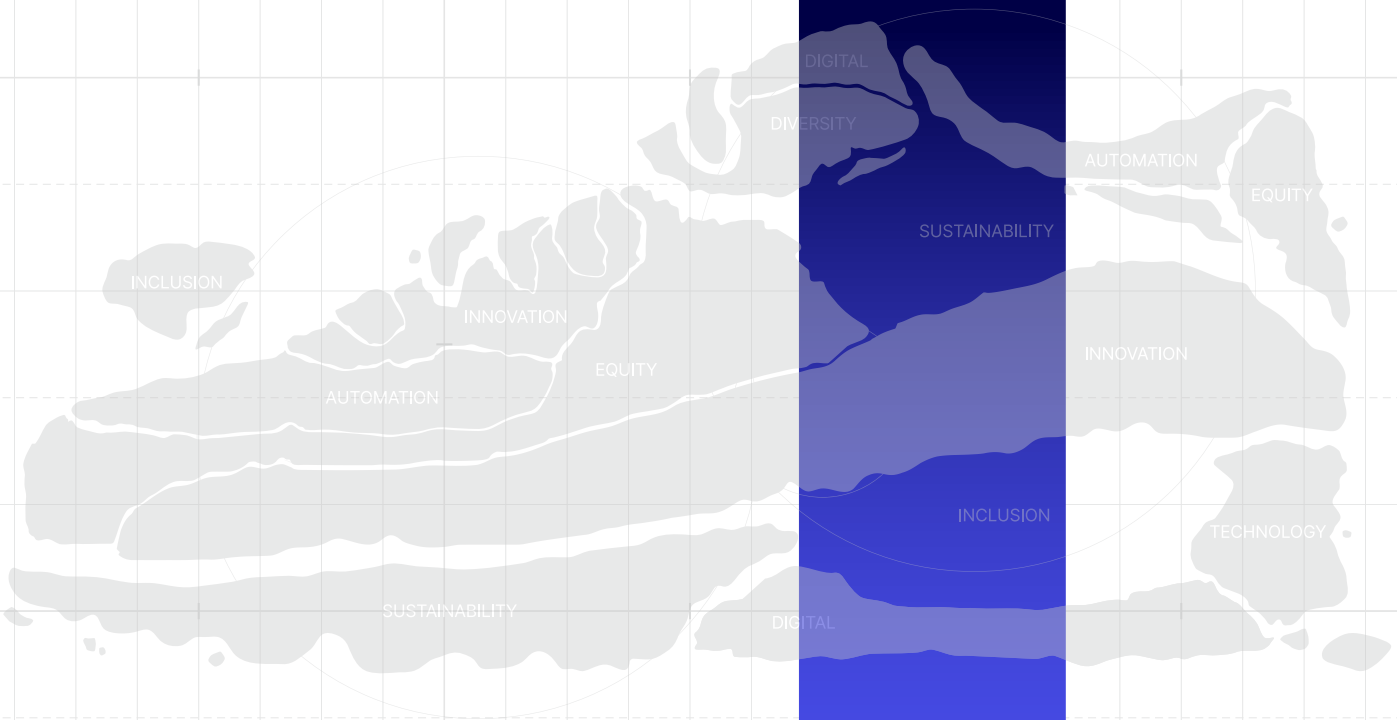
2024
Vol.06

TALK 2

[톡투]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Magazine



CSG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깊은 통찰 6
함께, 새로운 도전

톡뷰 [TALK² + Interview] 14
창신과 함께 성장한 10년

CEO 두줄 노트 22
발명이 아닌 발견

Special Page 24
CSG 광고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창신의 한 문장 9
"응원해 창신" 한 문장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9
CSBP 그룹

CSG News Pick (#창_뉴_픽) 32
#QRC #Craftsmanship #Data Scientist
#차세대추진단 #Offshore

Advertisement 43
탁구 동호회 / 탁마

Lean 단상 44
36호 컨테이너

Trend Catcher 46
News Clipping 72호

Date of Issue | 2024. 10. 15

Publish | C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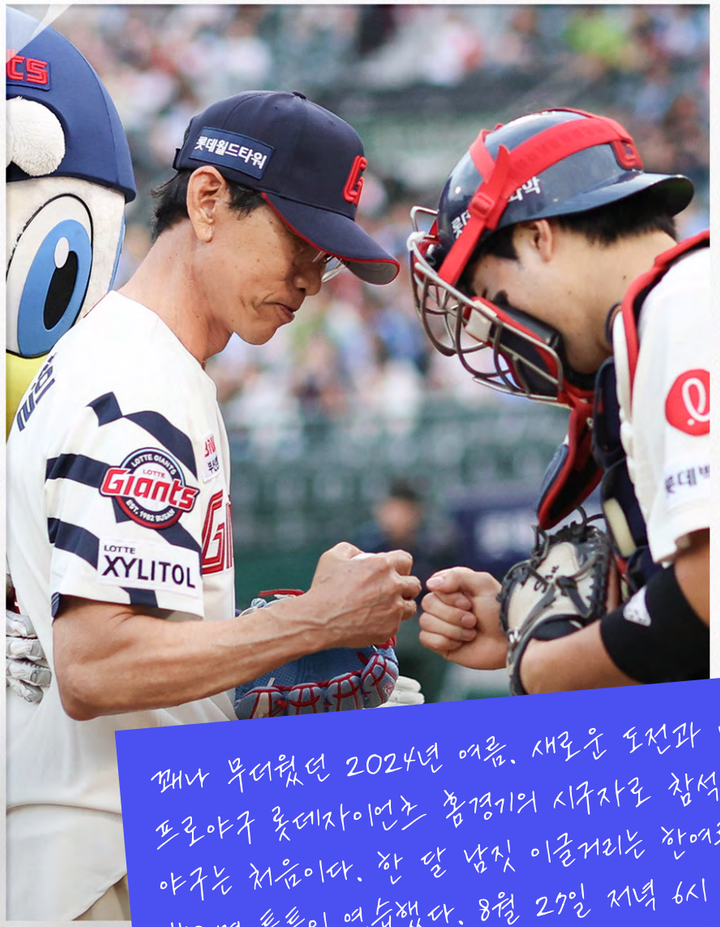
Editors | Communications팀 송은화, 유민지, 이윤주, 배효주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꽤나 무더웠던 2024년 여름, 새로운 도전과 마주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홈경기의 시구자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야구는 처음이다. 한 달 남짓 이글거리는 한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틈틈이 연습했다. 8월 29일 저녁 6시 25분,
잠내 아나운서의 소개와 함께 마운드에 올랐다. 호흡을
가다듬고 오롯이 포수에게만 집중했다. 전혀 떨리지 않았다.
아마도 한마음으로 힘껏 응원해 준 천여 명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 때문에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으리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던, 한여름 밤의 소중한 추억이다.

숫자 10은 완성, 완전, 충만의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10월, 농부가 벼를 수확하듯

한 해 계획한 것들의 결실을 챙기는 시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하기에도 결코 늦지 않은 달이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도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The Ace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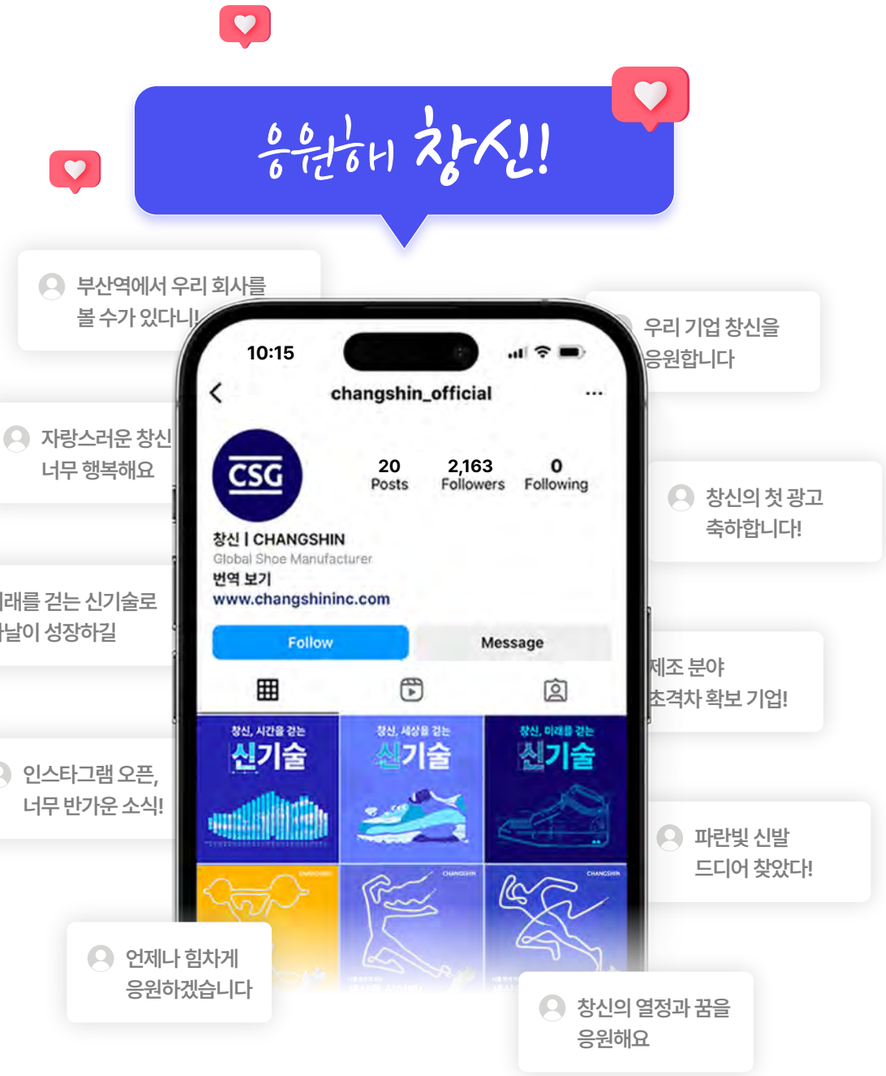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창신의 한 문장

전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창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나눕니다

'응원해 창신' 한 문장

지난 8월 19일, 창신그룹의 첫 광고 런칭과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신 임직원을 비롯한 부산 시민 1,833명이 참여하여 창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신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담은 '응원해 창신' 한 문장을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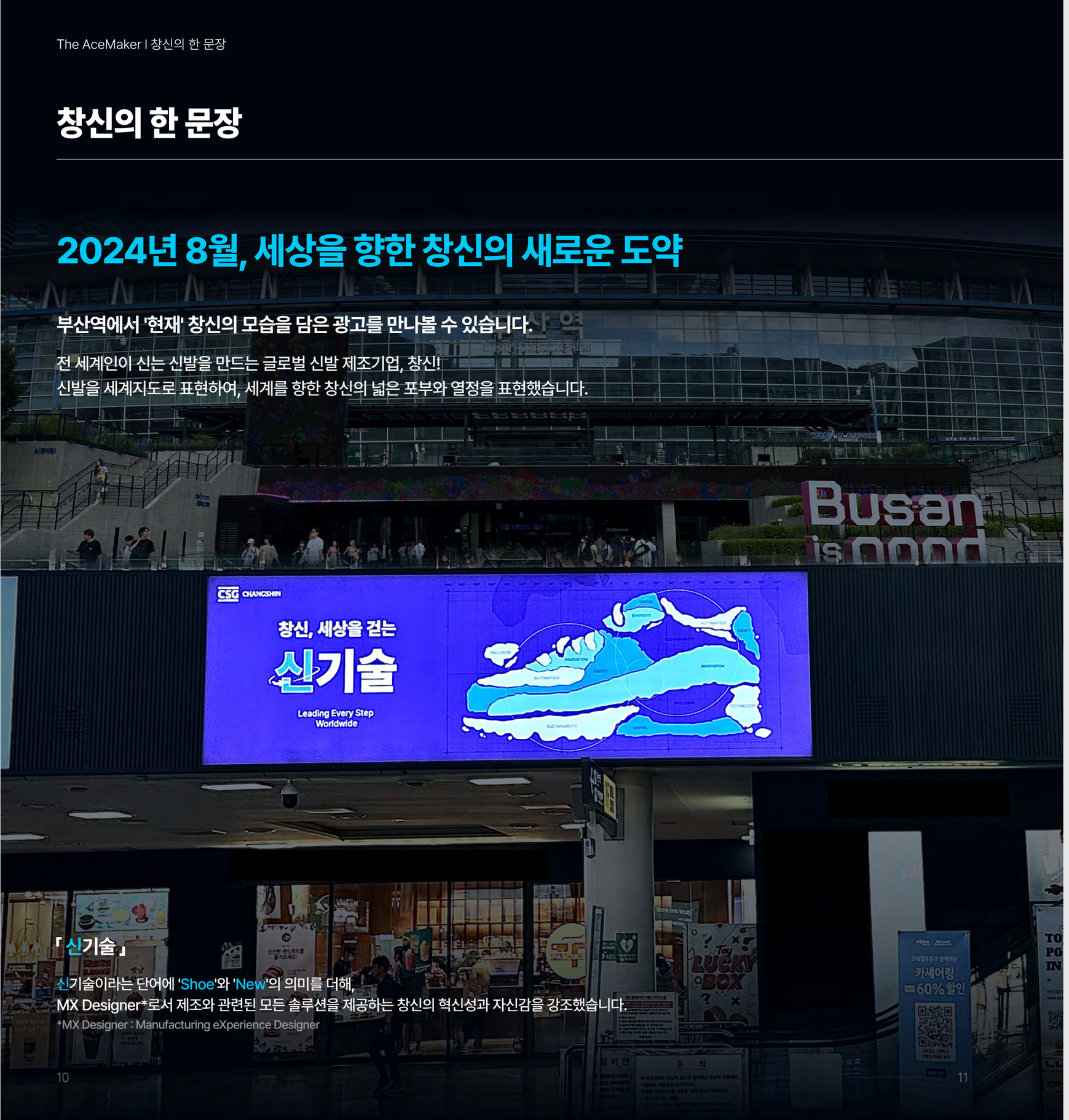


창신의 한 문장

2024년 8월, 세상을 향한 창신의 새로운 도약

부산역에서 '현재' 창신의 모습을 담은 광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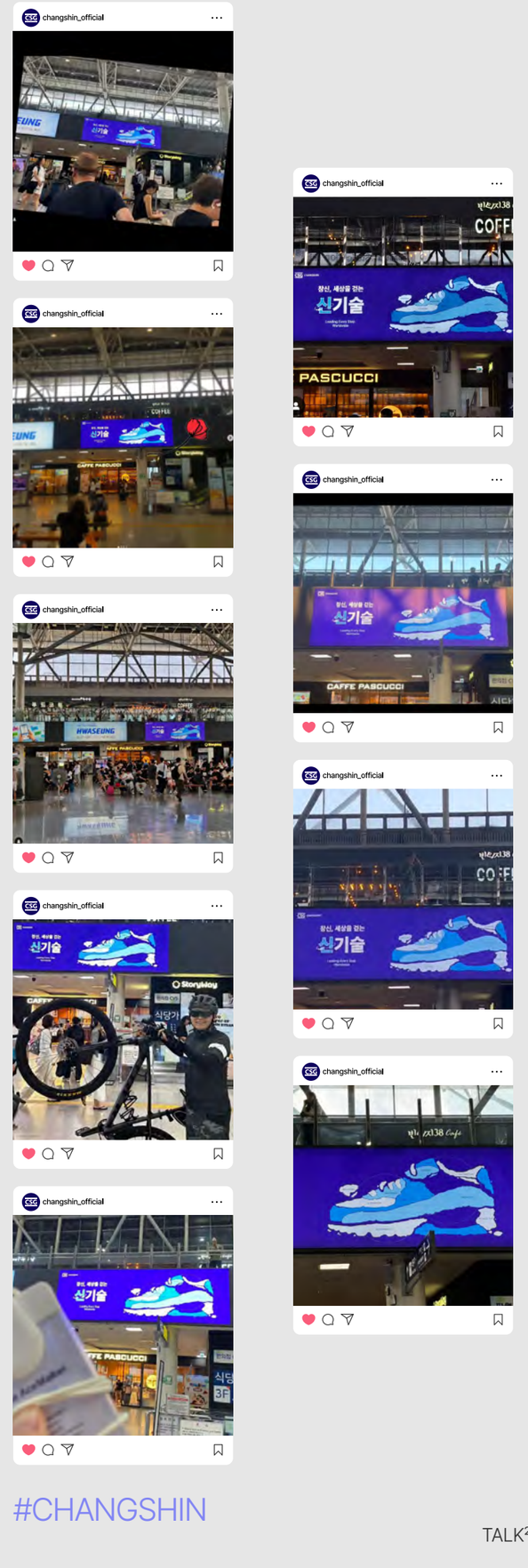
전 세계인이 신는 신발을 만드는 글로벌 신발 제조기업, 창신!
신발을 세계지도로 표현하여, 세계를 향한 창신의 넓은 포부와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신기술」

신기술이라는 단어에 'Shoe'와 'New'의 의미를 더해,
MX Designer*로서 제조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신의 혁신성과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MX Designer :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CHANGSHIN

창신의 한 문장

'응원해 창신' 한 문장

창신에 대한 애정과 기대, 그리고 격려가 담긴 다양한 '응원해 창신' 한 문장들이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신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뜨거운 응원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Vic****.jeong

부산역에서 우리 회사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신기했던 순간!

Eda****p

신발과 함께하는 **창신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의 신발을 위한 청사진**이 반드시 실현되는 창신이길 또 응원합니다!

Dor****ri9988

모든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제조 분야 초격차 확보** 기업!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창신의 첫 광고 오픈을 축하합니다.

Not****i12

파란빛 신발 찾았다 우리 기업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자 창신♥

Zzo****bbak

창신의 신발로 함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신의 연구와 개발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가벼운 보행**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Jji****80

창신이 인스타그램을 오픈했다니 정말 반갑네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가득한 창신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Bun****ingan

시간을 걷고 세상을 걷고 미래는 걷는 신기술로 나날이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Yy0****

신발 개발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창신의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4.9****

망설임 없는 도전으로 경험을 기록하고, **신선하고 즐거운 감각으로 옴팡지게 성장**하는 창신 기대하겠습니다! 힘차게 응원해요.

Spa****im

43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창신이 앞으로도 신발 제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가득한 창신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Fee****oodis

이번 인스타그램 오픈이 **창신의 발전**과 **더 나은 신발 문화** 창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8ji****en2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면 결국 그 마음이 닿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성장이 되는 따뜻한 비상**이 되길 응원할게요.

Nic****203

이번 광고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신의 숨겨진 이야기와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Jsh***25

자랑스런 창신에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Lul****_ssh

신발 개발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받는 창신**이 되길 항상 응원할게요!

Aby****k

창신의 신기술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Nik****_

풋웨어 제조 전문 기업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창신의 첫 광고를 축하합니다!

Yy0****

첫 광고 오픈과 인스타그램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신의 우수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n_y****94

혁신을 향한 도전과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창신,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빛나는 창신, 파이팅

changshin_official

더 많은 응원의 한 문장은
CSG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톡뷰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1만 시간을 넘어, 9만 시간
끝없는 도전과 헌신으로
창신의 미래를 그려가는 에이스 3인방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분야에서 탁월한 경지에 오르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꾸준한 노력이 전문가를 만든다는 이 법칙은 창신에서 9만 시간 이상을 보낸 세 명의 에이스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BD팀 김현진 과장, SA팀 최송아 과장, 총무팀 전인석 차장은 약 9만 시간 동안 창신과 함께 성장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세 사람을 직접 만나 그동안 걸어온 10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새로운 일을 빠르게 배우는 것이 나의 전문성 ”

해본 적 없는 일을 시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결국 잘 하게 돼

김현진 과장 BD팀

“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

Q 입사 10년 축하드린다. 소회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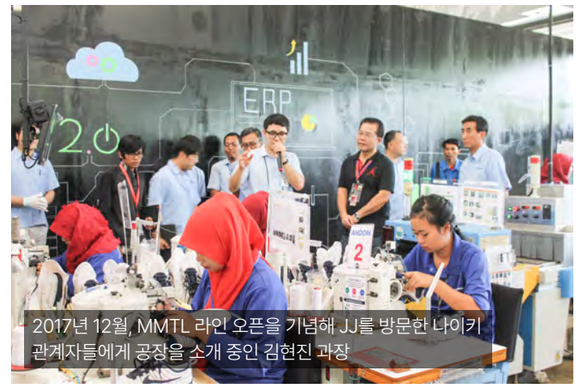
해외공장에서 5년, 본사에서 5년, 돌이켜 보니 벌써 10년이 되었다. 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해 온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Q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입사 후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JJ에서 근무할 때 PMO(Partner Management Office)에서 규정한 안정성 검사가 누락되어 기계가 잠시 멈췄던 일이 있었다. 해외공장에서는 큰 기계가 멈추면 생산성과 직결되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정말 긴장됐었다. 그때 현지 담당자, 업체 그리고 사수였던 공무 담당 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전기 및 배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PMO에 제출했다. 그 결과 빠르게 현장 검증을 받고 안정성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혼자서는 힘든 일이더라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DI(Development Process Innovation) 특공대 1기부터 7기까지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사람들이다. 팀 특성상 CDC 부서 업무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기회가 많았고, 이를 통해 **타 부서의 업무를 비롯해 회사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넓어졌다.**

DI 특공대 1기



2017년 12월, MMTL 라인 오픈을 기념해 JJ를 방문한 나이키 관계자들에게 공장을 소개 중인 김현진 과장

Q 10년 동안 쌓은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새로운 일을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다.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거나 못한다고 한정 짓는 순간, 그 일은 정말 못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시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 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업무가 주어졌을 때 공부하고 노력한 덕분에 Low Cost Automation을 위한 PLC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두려움 대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모르는 부분은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며 배우려는 것**이 나만의 전문성이다.

Q 앞으로 10년,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나

회사의 미래 전략과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ata Driven Organization 전환을 도와 회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후배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멘토이자,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선배가 되고 싶다.

Q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신입 시절, 실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을 때 한결같이 **믿고 격려해 주신 JJ, 박선학 이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창신에서 성장하며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사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끊임없는 질문과 매일의 기록이 성장의 힘 ”

작은 일에서도 배우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최송아 과장 SA팀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다 ”

Q 입사 10년이다. 돌아보면 어떤가

“(그동안) 잘 버텼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주변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돌아보니 창신 사람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입사 2년 차에 해외법인에서 보낸 3년은 낯선 환경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 값진 시간이었다.

Q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

공채 18기로 영업팀에 입사해 오더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해외법인에서 NCF(Nike Costing Framework) 파일럿 프로젝트와 영업 업무를 진행했다. 해외법인 특성상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E2E(End to End)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2020년 본사 SA팀으로 복귀하여 현재는 중장기 소싱 전략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 상반기, 팀장의 부재로 팀장 대리를 맡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막연히 ‘팀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선 쉽지 않았다. 업무를 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선호하고, 팀원들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팀이 처한 상황상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을 노트에 기록했다. 문제를 글로 적어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습관이 길러졌고,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를 통해 **머릿속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 이 습관은 지금까지도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나이키 비즈니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겸손함을 배웠다.** 또한, 팀장의 노고와 팀워크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이 기회를 빌어 팀장 이하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Q 앞으로 10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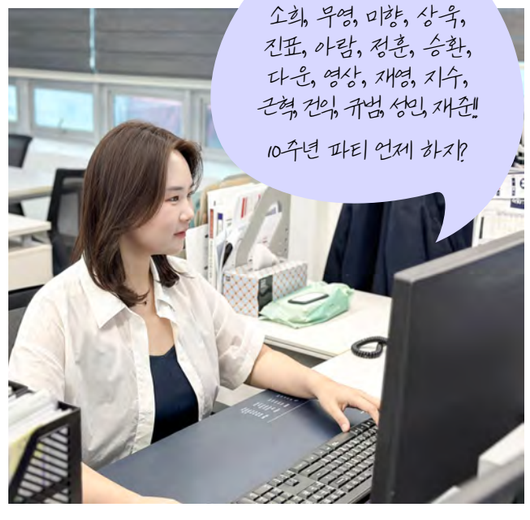
우선,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를 위해 **내가 속한 회사와 우리가 만드는 신발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창신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사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Q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재충전 방법이 있나

매년 템플스테이를 간다. 천주교 신자이지만, **종교를 떠나 이제 템플스테이는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우연히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는데, 그 매력에 푹 빠져 매년 여름휴가 일주일을 사찰에서 보내고 있다.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쉼은 평소 바쁜 일상과 소음에 지친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얽히고설킨 머릿속과 마음을 정돈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비우고 채우는 시간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템플스테이, 강력 추천한다!

Q 18기 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동기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된다.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기들을 보면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하지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지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레이스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는가!



“ 회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창신 전문가로 만들어 ”

총무, 회사 특화 직군
업무에 자부심 갖고 해나갈 것

Q 입사 10년이다.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베트남에서 시작하여 현재 총무팀에서 10년째 창신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부산이 이제는 고향인 대구보다 더 편안해졌다. 회사의 **빠른 성장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묵묵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창신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성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회사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본사에서 근무하며 맡았던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근과 주말 특근이 계속되었고, 공사 막바지에는 철야 작업까지 하며 현장을 감독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다. 몸은 고되었지만, 완료 후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사실 총무는 항상 생소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정형화된 업무도 많지만, 전혀 모르는 생경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면 막막함이 느껴지곤 한다. 인터넷 검색이나 업체에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Q 그동안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면

총무 업무는 회사에 특화된 직군이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에 능통하고, 회사 전반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회사의 운영 상황을 구석구석 잘 파악해, **각 부서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잘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회사의 살림꾼으로 10년을 지내다 보니 동료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지난 8월 27일 사직야구장 경기 관람 행사를 진행하면서, 과정은 고생스러웠지만 임직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덕분에 피로가 싹 가셨다.

총무 업무는 단순 지원 업무가 아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다른 만큼,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창신 총무 업무’라는 전문성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겠다.**

Q 함께 일하며 감사했던 분들, 또 선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입 시절부터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CSTV 권대중 전무, 최동주 부장, CSTI 이춘근 이사에게 감사드린다.** 업무 태도부터 직장인 간의 상호 예절, 직업적 윤리의식을 배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말로 하진 않았지만, 창신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항상 도움이 되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업무에 임하겠다.**

2014년, 본사로 돌아오기 전 함께 일한 CSTV 권대중 전무(왼쪽에서 두 번째), 최동주 부장(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

창신과 함께 성장한 10년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기계설비의 핵심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지난 8월 27일 사장님과 직원들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 **CEO Open Talk**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올해 3월 생산기술본부의 신설과 함께 회사는 기계/장비에 대한 관리 규정 및 투자 정책 마련과 더불어 설비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다. **설비와 공정기술 표준화를 통해 기술(테크놀로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초격차 창신, VISION 2028 달성을 위한 회사 전략 방향의 한 축**이기도 하다.

표준화된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면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숙련공처럼 인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최고의 제품을 최상의 품질로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 전략의 핵심은 개발이 아니라 최적의 장비를 찾아 창조적으로 조합하여 재가공하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처럼 **발명이 아닌 발견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사장님, 창신과 함께한 10년을 축하드립니다 🎉 ”

너를

[뛰게 하는]

힘나게 하는

춤추게 하는

세상을 신어봐!

Special Event

당신을 뛰게 하는 순간을 알려주세요!

참여하기(10.15 ~ 31)

changshin_official

사명 I Mission

Creating Progress ware by redesigning MX*

우리는 제조 경험을 새로 설계하여 Progress ware를 만듭니다.

*Manufacturing eXperience,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제조 경험

Progress ware

사람과 세상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Progress wear

신발을 넘어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웨어러블 제품

Foot wear

패션 또는 운동을 위한 신발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Future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 표준화된 생산 공장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으로 창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한다 "

신발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창신의 혁신 여정, 그 중심에는 CSBP그룹(이하 CSBP)이 있다. 지난 3월 1일 팀에서 그룹으로 개편된 CSBP는 표준화된 생산 공장과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창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문서화되지 않았던 노하우와 경험 등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전사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CSBP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창신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화 및 유기적 연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CSBP그룹 / GP팀 강경태 차장 인터뷰

흩어져 있는 지식을 모아, 창신의 미래 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GP팀의 리더, 강경태 차장을 만나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들어봤다.

Q GP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GP팀은 Growth Platform, 창신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팀의 문서 리스트를 정의하고 취합하는 '관리·기술 문서 현행화',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지적자산 디지털화', 사무직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AI기술 도입을 준비하는 'AI 기반 기획안' 준비, 그룹의 건축 정보를 데이터화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창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Q 최근의 성과라면

현재 진행 중인 **관리 및 기술 문서 현행화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창신의 모든 팀에서 발생하는 지적 자산 데이터를 하나의 DB로 통합 관리하는 작업이다.** 각 팀별로 관리가 필요한 문서 항목을 정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문서 관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올해 안에 본사의 모든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본사의 모든 팀장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가졌다. **각 팀의 생생한 목소리 들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GP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Q 어려운 점은 없나

모든 업무에서 표준화된 기준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표준화된 업무 기준이 정의되면 일관된 업무진행이 가능**해지고, **혼선이나 의사결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현재도 각 부서별로 표준과 기준에 따라 일하고 있지만, **부서나 개인마다 관리 방식이 달라 이를 최적화하고 동일한 표준을 정의해 일관되게 관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GP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당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사는 직접 대면하며 소통할 수 있지만 해외법인은 출장을 감안하더라도 거리 등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 GP팀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업과 지원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하고 싶은 말

올해 직책자로서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팀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에 대해 많이 공부하려 한다.

GP팀, 파이팅!!

CSBP그룹 / FLM팀 한준형 대리 인터뷰

43년 신발 산업 노하우를 디지털 플랫폼에 담아 최적화된 미래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FLM팀의 핵심 멤버, 한준형 대리를 만나 생산 공장의 혁신을 위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에 대해 들어봤다.

Q FLM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FLM(Factory Lifecycle Management)팀은 창신의 43년 신발 산업 노하우를 모으고 분석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신발 생산공장 설립 및 운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New MCO(Manufacturing Country of Origin) Package 프로젝트를 필두로, 공장·라인 표준화 및 최적화 프로젝트, 공장 생애주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Factory Lifecycle Management, 디지털 기반 미래 공장 조직 설계 프로젝트, 본사 주도의 생산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Global Operation Center 구축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Q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창신은 VJ를 포함하여 4개의 해외 생산 공장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의사 결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제안, 유연한 고객 대응, 최적화된 공장 설계를 통해 건설 및 생산 준비 영역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Q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많을 것 같은데, 창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CSBP 업무는 해외 공장의 생산 노하우를 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비록 생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생산 노하우를 담은 멋진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CSBP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QRC

CSG AI Chatbot, QRC Beta 오픈

QRC Beta 접속 링크 : https://qrcbot.changshini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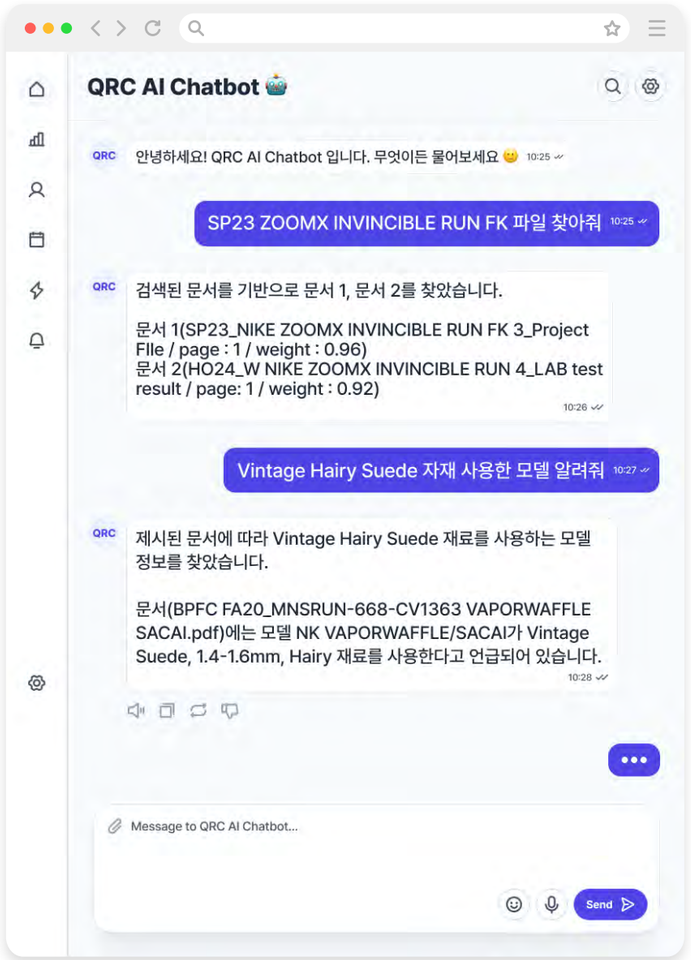
QRC(Quick Response Center)는 창신의 문서와 노하우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CSG AI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2022년 7월, 개발 문서에 한정된 QRC Pilot 단계를 시작으로, 2년 동안 AI 최신 기술(LLM,RAG*)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는 10월 28일 Beta 버전 오픈을 앞두고 있다.

Beta 단계는 개발, 품질, 인사, 총무 등 120여 명의 테스터들에게만 우선 공개될 예정이다. 약 한 달간 테스터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초기 기능을 점검하고, 정합성을 향상시킨 후, 현재 기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IPA팀 김혜민 대리는 "AI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강화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 스마트한 창신만의 QRC를 만들기 위해서는 Beta 테스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선정된 테스터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요청했다. 창신의 첫 AI Chatbot, QRC는 Beta 테스터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1월 창신 전체 임직원들에게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AI Chatbot QRC 기능

문서 & 정보 찾기	AI 대화형 검색을 통해 3,000여 건의 창신 문서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및 문서 찾기**
문서 미리보기	사용자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찾은 문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
엔지니어 전문가 찾기	특정 분야 및 기술의 높은 식견을 가진 창신 **엔지니어 전문가 정보 찾기 기능**
다국어 번역	5개 언어(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한국어)로 검색 가능하며, 4개 언어(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중 어떤 언어로 질문하든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함께 검색되므로 더욱 폭넓은 답변 제공

*LLM(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 언어 모델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사용자의 질문에 부합하는 문서를 유사도 기반으로 찾아주는 체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입니다.

제공 문서 유형

개발 품질 (18종)

MR
FMEA (HQ / JJ)
Project File (HQ / JJ)
Lab Test Report
PFC
Spec Chart
Game Plan
품질실패사례
라운드 샘플 제작 수량 정리
WQM
Development Improvement
Internal Benchmarking
SPA Issue Report
Trial Issue Report
NPI LIST(VJ)
엔지니어 전문가 DB v.1.3

규정 (2종)

인사 / 총무 규정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Craftsmanship

창신, 고용노동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창신의 'Craftsmanship 양성훈련'이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창신은 부산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한 'Craftsmanship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기업 내 양질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훈련기관, 일반직무전수, 과제수행 등 5개 부문에서 151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특히 최종 1,2위는 행사 당일 참관객의 현장 투표로 결정되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HRD 차준호 차장은 "Workshop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훈련생들의 현장 적응을 돕고 역량 강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Craftsmanship 양성훈련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RD 차준호 차장이 Craftsmanship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창신 'Craftsmanship 양성훈련'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7개월 과정의 채용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35명의 졸업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신에 입사해 재봉, 노쏘, LAB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교육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Workshop 구성모 부장, HRD 신지윤 부장, Workshop 김재원 이사, HRD 차준호 차장, 이수범 이사, 김수연 대리, 주성은 과장, 유성효 대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Data Scientist

제7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지난 9월 12일, 제7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법인/본부/계열 Competition)가 약수루에서 개최됐다. 본사를 비롯한 해외법인 총 9개 팀이 각 본부를 대표해 참여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최종 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망의 1등은 HRBP팀의 이용찬 과장의 '대퇴사시대 : 퇴사요인분석'이 차지했다. 최근 4년간 자발적으로 퇴사한 MZ세대를 대상으로 통근 거리, 직무 등의 인사 정보를 변수로 활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주제의 독창성과 잠재적 활용가치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용찬 과장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열심히 분석해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대교체와 함께 직원들의 직장 경험과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분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창신 임직원들의 직장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왼쪽부터) 생산기술본부 김종철 부사장, 창신정밀 김새봄 대표, 정동흔 CSO, 서흥 이석권 대표, 창신정밀 주성국 차장, 남충일 CEO, HRBP 이용찬 과장, 정환일 회장님, 포스텍 조현보 교수, Category CE 윤석호 대리, CDC 김병준 전무, 무역 강경균 과장, Digital Lean 박성영 부장, 위영량 CDO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실무 데이터의 정제를 통한 가치 창출과 사내 데이터 분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인사, 생산,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469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출품되었다. 매해 행사 준비를 맡아 온 Digital Lean팀 허시영 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분석 기법이 정교해지고 분석 결과의 현실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수준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 처리가 창신의 하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 임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7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본부/법인/계열 Competition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대퇴사시대 : 퇴사요인분석	2024 Paris Olympic 품질확보	CTM condition LINEAR PROGRAM	사출 불량률 유형 표준화 & 시각화
이용찬 과장 CTO HRBP	**손병일** 과장 QD 개발	**윤석호** 대리 CDC Category CE	**주성국** 차장 CSTC 영업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차세대 추진단

차세대 추진단,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6개월의 여정

지난 4월, 창신의 디지털 혁신 DNA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차세대 C2.0 추진단. 8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6개월, 차세대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혁신을 위한 여정을 펼쳐왔다. 자체 워크샵은 물론, 해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 현황 및 관리 시스템, 주요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했다.

차세대 C2.0 추진단이 지난 8월 21일 VJ를 찾아 제조동에서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PI팀 | 김태국 부장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계획을 수행하는 ERP가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작업 지시를 활용하여 원가를 설계하고, 유동성, 수익성, 손익을 예측하고 실행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작업 지시 없이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세대 C2.0 추진단이 이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ERP팀 | 이재민 부장

전사의 성장 계획 및 사업 계획, 예산 계획 등을 분석하고, 원가 관리 체계의 현황과 한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적화된 경영 관리 Framework를 구축하여 경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창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Digital MFG팀 | 이종무 차장

국내에서 제조업, 특히 패션 산업에서 DMC(Digital Manufacturing Clou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창신이 최초이다. 팀 자체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매주 2회,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각자 시스템 기능별로 세세하게 분할해 공부한 뒤 발표 및 토론하며 프로젝트 Kick-off를 기다렸다

Digital PCC팀 | 신철호 차장

기준 정보와 제품 설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사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으로 제품 개발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발 정보가 생산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Offshore

VJ, 당뇨 및 당뇨망막증 컨퍼런스 개최

VJ는 지난 8월 30일 '당뇨 및 당뇨망막증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창신 리더십과 동나이성 및 동나이 종합병원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베트남 내 당뇨병 동향을 파악하고 VJ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당뇨 합병증의 단순 치료를 넘어 디지털 의료 기술을 활용한 당뇨 조기 진단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정밀 검사를 통해 선별된 3명의 당뇨망막증 고위험군 직원을 우선 치료해 건강 증진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VJ 리더십은 "직원들의 건강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환일 회장님 등 창신 리더십과 동나이성 관계자들이 컨퍼런스 이후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JJ, '에너지 경영 리더십 어워드' 수상

JJ의 친환경 경영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JJ는 지난 9월 5일 청정클린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에서 주관한 '에너지경영 리더십 어워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에너지경영 리더십 어워드'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기반으로 산업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미국, 일본 등 각국을 대표하는 37개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JJ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과 공정별 에너지 배출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해 연간 7,565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했다. 이는 12만 그루의 나무가 10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달한다.

10월 2일 브라질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한 JJ RSM 윤정현 차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추기 위한 JJ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JJ를 대표하여 RSM 윤정현 차장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국장 Mr. Edi Wibowo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

*Clean Energy Ministerial: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다자 회의체. 2010년 7월 발족 후 2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1년 6월 발효시킨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Notice

광고 페이지

디지털 사내보 TALK²는 창신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게재 가능합니다.

-
문의
Communications팀

탁구 동호회 **탁마**

(TABLE TENNIS MASTER)

지난해 사하구 탁구 대회에서 2명의 우승자를 배출한 '탁마'는 올해 전체 회원의 승급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함께 즐길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CSG 임직원, 기초 체력을 키우고 싶은 누구나

활동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활동 장소
3층 식당 앞 탁구장

신청 방법
운영진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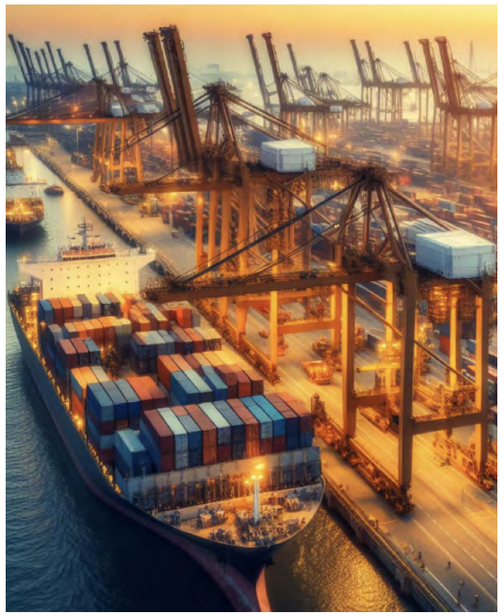
회장 김창규 부장 (010-8938-1146)
총무 권황현 대리 (010-3357-8250)
코치 조현덕 부장 (010-2566-9690)
코치 황동영 부장 (010-9267-887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탁마' 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Lean 단상 36호

컨테이너

글 | LEAN그룹 김성훈 대리



생성형 AI ‘Copilot’으로 제작한 이미지

매년 11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오면 한국의 알뜰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느라 바빠진다. 의류와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가구와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제품들도 해외에서 구입해 배송받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책상은 5만 원, 4인용 소파는 15만 원에 배송이 가능하며 이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용달차 한 대 부르는 값보다 저렴하다.

해상 운송이 이렇게까지 저렴해진 이유는 1960년대 급속도로 보급된 해상 컨테이너 박스의 공이 절대적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길이 약 12미터의 컨테이너 박스 2,500만 개가 물건의 운송과 보관에 쓰이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처럼 특수 선박이 필요한 원자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상품이 컨테이너에 담긴 채 바다를 건너 소비자에게 운송되고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역사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석탄을 나르기 위해 마차 뒤에 연결하던 큰 나무 박스에 붙여진 이름이 '컨테이너'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19세기 철로가 설치되면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 규제가 심하고 보수적이었던 운송 산업은 국가, 운송 수단, 기관마다 컨테이너 규격이 달랐고 더불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배를 소유한 해운 업체는 굳이 돈을 들여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크레인을 항구에 설치하지 않았고 트럭 업체는 항구에 내려놓은 화물이 어떻게 배에 실리는지 관심이 없었다. 선박에 제각각 다른 모양과 무게를 가진 화물들을 실으려면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소요되었고, 화물의 분실과 파손도 잦았다.

이에 미국 사업가 말콤 맥린(Malcolm McLean)은 오랜 연구를 통해 선박과 트럭이 함께 쓸 수 있는 공통 규격의 컨테이너를 개발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으며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 강철 박스는 세계 화물 운송량을 7배나 증가시키고 해상 운송비를 60%나 감소시켰으며 화물이 항구에 체류하는 시간을 1/4 이하로 줄였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18세기 후반부터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국지적으로 사용될 뿐 확산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이용이 늘더니 불과 15년 만에 전통적인 운송 방식을 몰아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이 Tipping Point를 가져왔을까? 바로 컨테이너 규격의 ‘표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의 표준화란 사물이나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떤 특정 활동을 순서 있게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편익, 경제, 기능, 안전 등을 충족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창신도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의 표준화, PPT 템플릿의 표준화, 용어의 표준화, 그리고 24년도 주요 과제로 S/4HANA 도입을 통한 시스템 표준화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할지도 모른다.

‘부서 간의 사일로’ , ‘변화에 대한 두려움’ , ‘고정관념과 선입견’ 등은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다”, “이미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다시 배워야 한다” 등 수많은 이해관계를 설득해야 하지만 표준화 과제를 달성해야만 한다.

VISION 2028 The AceMaker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표준화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우리는 표준화에 성공할 때 얻게 되는 이점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Quality, Cost, Delivery 등 모든 KPI 지표들의 개선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Know-how가 표준화를 통해 전사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Way of Working 또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표준화는 한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표준화를 달성한다면 목표한 The AceMaker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2]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September 2024

작성 I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32년 베테랑 '엘리엇 힐' CEO 취임, 시간 외서 10% '껑충'

- 2020년까지 NIKE 소비자 시장 부문을 이끌고 은퇴한 엘리엇 힐(Elliott Hill), 10월 14일 CEO 겸 사장으로 취임
- 엘리엇 힐은 과거 NIKE의 판매 및 마케팅 전반을 담당, 사업을 390억 달러 이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 성공에 크게 기여한 인물
- 나이키 이사회 의장 마크 파커(Mark Parker)는 "미래의 니즈, 과거 비즈니스 성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엘리엇 힐이 나이키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힘
- 엘리엇 힐의 합류 소식 이후 NIKE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뛰어 90달러 부근을 기록
- 이전 CEO인 존 도나호(John Donahoe)는 10월 13일 퇴임 후 2025년 1월까지 회사 고문으로 남을 예정

* 시간 외 거래: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의 정규 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접수하여 정규시간 매매와는 별도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제도

뉴스핌

NIKE의 'Winning Isn't For Everyone' 캠페인, 올림픽 광고 평가 지수에서 1위

- 미국의 종합일간지 USA Today가 실시한 설문조사 'USA Today's first Olympics Ad Meter'에서 NIKE의 'Winning Isn't For Everyone' 캠페인이 1위를 차지
- 이 캠페인은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그들을 더 나아가게 하는 영감의 원천임을 주제로 지난 7월 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됨
- Olympics Ad Meter 순위는 창의성, 스토리텔링, 메시지, 제작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10명의 USA Today 직원들이 결정
- USA Today는 1위 선정 이유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NIKE만의 미션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2, 3위는 스포츠 리테일 회사인 Dick's Sporting Goods와 Volkswagen이 각각 차지

MARKETING BREW

NIKE, 레고와 파트너십 체결...2025년부터 본격 활동 예정

- 어린이들의 창의적 놀이와 성장을 위해, NIKE와 레고그룹이 파트너십을 체결,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시작 예정
- 이번 협약은 아동 놀이권 신장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라는 양사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
- 레고 브릭이 가진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과 NIKE의 'Just Do It' 정신이 결합한 콜라보 제품과 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이와 스포츠 경험을 제시할 예정
- NIKE 글로벌 키즈 부사장 칼 다워스(Cal Dowers) "모든 어린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레고그룹과 함께 창의적인 놀이와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

이데일리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2]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September 2024

작성 I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고객사 / 산업

파리올림픽 남자 마라톤 메달리스트, ADIDAS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 & ASICS '메타스피드 파리' 착용

- 파리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타미랏 톨라(Tamirat Tola)와 동메달리스트 벤슨 킵루토(Benson Kipruto) 모두 ADIDAS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EVO 1' 착용

- 해당 제품은 138g의 무게로 ADIDAS 역사상 가장 가벼운 레이싱화이며 삭 라이너*를 제거하고 액상 고무를 활용한 아웃솔과 경량 갑피로 무게를 최소화
- 은메달리스트 바시르 아브디(Bashir Abdi)는 ASICS의 '메타스피드 파리'를 착용
- '메타스피드 파리'는 카본 플레이트 구조를 변화시켜 반발력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22g을 줄여 효과적인 탄력성을 제공

* 삭 라이너: 신발 안창 최상단에 부착된 패브릭

레이디경향

화승 엔터프라이즈, ADIDAS 실적 회복에 따른 수혜 기대

- 한국IR협의회, 화승의 2024년 연간 실적 매출액을 전년 대비 30.2% 증가한 1조 5,806억 원으로 예측. 영업이익은 474.0% 증가한 744억 원으로 전망
- 주요 고객사인 ADIDAS가 호실적을 기록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진율 개선을 위한 수직계열화도 잘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ADIDAS 내 신발 제조 점유율은 2015년 10%에서 2024년 2분기 기준 21%까지 상승했으며, 현재 ADIDAS 신발 제조 기업 중 2번째로 높은 점유율 차지

이투데이

PUMA, 로드 러닝에 최적화된 러닝화 '매그맥스 나이트로' 출시

- PUMA, 8월 12일 로드 러닝에 최적화된 맥스쿠셔닝 러닝화 '매그맥스 나이트로' 출시
-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적용된 신형 나이트로폼은 고무와 플라스틱 성질을 모두 가진 TPEE*와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 PEBA**에 질소를 주입해 제작
- 기존 나이트로폼 대비 반발력과 추진력, 경량성이 모두 업그레이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에너지 반발력이 뛰어나 지면을 디딜 때 부드러운 착지와 탄성 넘치는 토오프(toe-off) 동작이 가능

* TPEE(Thermoplastic Polyester Elastomer)
: 열가소성 탄성체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충격 흡수와 반발력이 우수
** PEBA(Polyether Block Amide) : 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내구성과 탄성이 우수

이데일리

ANDAR, 러닝화 신제품 '안다르 제트플라이' 출시

- ANDAR, 9월 6일 무릎과 발목의 충격 흡수에 탁월한 러닝화 신제품 '안다르 제트플라이' 출시
- 일상과 운동의 경계 없이 착용하는 애슬레저룩에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발의 양옆과 후면 부분에 실버 색상의 반사 소재 로고로 포인트
- ANDAR 자체 연구개발(R&D)조직이 개발한 소재인 '세이티브 리액티브 폼'을 탑재해 충격 흡수 기능이 탁월하며, 무릎에 가는 부담은 줄이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줌. 무릎 통증, 발목 부상 위험 등 실제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것

데일리안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